



# TGIF를 모른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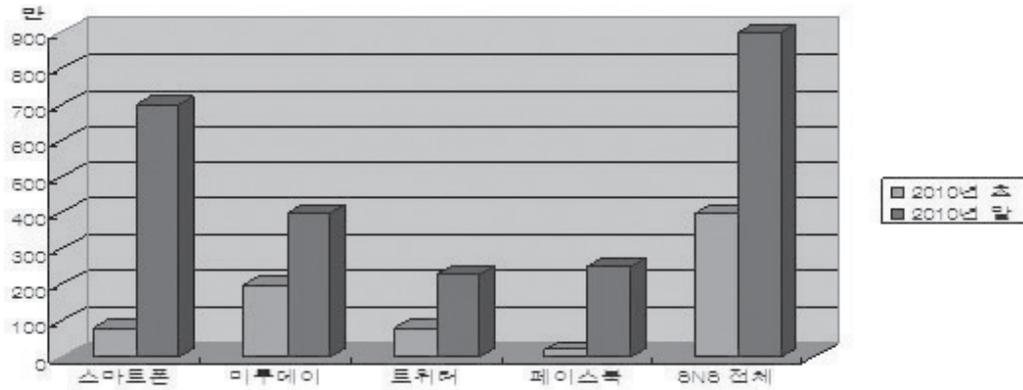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TGIF’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주말 잘 보내라고 하며 쓰는 말인 Thank God It’s Friday” 정도일 것이다. 필자 역시 얼마 전까지 그랬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시대의 변화 밑에서 잠자고 있다는 뜻을 최근에 알았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가혹하고 무례한 진단일까?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트렌드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2011년을 뒤집어 놓을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관하여 잠시 후 본문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2010년 12월~ 2011년 1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동관 LME 시세 228원 인상</li> <li>- 강관류 국내 내수시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단가 변동폭 없음</li> <li>2010년 12월말 제강사들 강관류 단가 동결 공문 발표</li> </ul>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으로 철 스크랩 시장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li> <li>현재 국내시장은 수요가 없어 제강사들이 철 스크랩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차 후 건설경기가 안정되면 강관 관련 제품들의 품귀 현상과 단가 인상도 예견됨</li> <li>- 현재는 대리점들의 출혈 경쟁이 극심하여 부실 대리점의 경우 부도를 피하기 어려움</li> </ul>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12월 LME 시세는 11월 대비 228원 인상 되었음</li> <li>- 구리 원자재의 강한 상승세가 1월 LME시세에 반영될 예정임</li> <li>- LME 거래소에 비철금속 ETF(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므로 비철금속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높음</li> <li>- 동 용접봉 가격은 은 확보 문제와 제조사 공급물량감소로 인해 상승세 유지</li> </ul>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STS관 BASE는 전월 대비 200원 인하</li> <li>12월초에 니켈 국제 원자재 시세는 톤당 2만 3천불에서 계속 상승하여 12월 중반은 2만 5천불 유지</li> <li>- 관련업체 정보에 의하면 STS관은 100원~150원, SUS후렌지는 10% 인상하고, 피팅류도 원자재 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함</li> </ul>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주요 자재의 인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 물량을 취합하여 분기 이상 장기 단가로 고정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임</li> <li>- 변동폭이 큰 주요 자재는 판매사에 선 입금을 통해 선 구매 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필요함</li> </ul>

SNS 사용자 추이



(자료: 원컨네트웍스, 2010년 12월)

지금 우리 사회에 인터넷 이상으로 큰 반향을 몰고 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바로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또는 스마트폰), 페이스북(Facebook) 등이다. 이들의 첫 자리를 딴 것이 바로 T.G.I.F.다. 이제 글 머리에서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그냥 F.I.T.(Facebook, iPhone, Twitter)라고도 하며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SNS 즉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한다. 이제 SNS를 등한시 하면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보 되기 쉽다. 아니 대화가 안 된다. 필자 역시 소신 꽤나 있는 사람이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잘난 척 좀 그만 해라' 하고 오히려 핀잔을 주며 비스마르폰을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름 파워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 대화에서 소외되기 일췌였다.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저항 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를 만난 것이다. 국내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유력한 인사는 현재의 SNS가 인터넷이 가져온 이상의 소용돌이를 세상에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실감을 못한다. 특히 현장에까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데 필자도 한 표 던진다. 다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생각 외로 빨라지듯이 SNS 서비스가 언제 갑자기 우리의 현장에까지

밀려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적어도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SNS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처리하던 일들을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다. 공문 주고 받고, 대화하고, 발주하고, 견적하고, 결제하는 등의 일들이 손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해 아쉽지만 새로운 해를 맞으며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화두임은 분명하다. ☺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컨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